

쓰레기 매립지에 법향法香을 피우다

美 포틀랜드 시스키유, 日 목조선계 선 센터 들어선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법향(法香)이 피우고 있다. 미국 오리곤 주 포틀랜드 시의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지였던 시스키유(Siskiyou). 지금은 매탄가스관만 여기 저기 보일 뿐, 넓은 초원으로 변모한 이곳에서 일본 목조선(Soto Zen)계 눈푸른 남자들이 수행센터 건축에 나섰다.

온라인 매체 디제이시 오리곤(DAILY JOURNAL OF COMMERCE, djcoregon.com)은 20일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시스키유 북동쪽에 위치한 27에이커의 대지에 달마 레인 젠 센터(Dharma Rain Zen Center)가 들어선다"며 "현재 매탄가스관이 매설된 곳이기도 하지만, 넓은 초원지대로 변모한 만큼 그 대지의 잠재성은 높다"고 보고했다.

시스키유(Siskiyou) 북동 지역은 초원 지대가 들어설 정도로 쓰레기 매립지라는 오명을 벗은 지는 오래됐다. 그러나 매탄가스관이 지층에 매설되어 있고,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넓은 공간과 푸른 녹지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셸리 지코 티스데일

(Sallie Jiko Tisdale · 공동체 개발위원회 위원) 스님은 "달마 레인 젠 센터는 이곳에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춘 수행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며 "수행과 수행의 공간만을 허락한, 자연 친화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전제한 카쿠묘 로 웰드(Kakumyo Lowe-Charde · 공동체 개발위원회 위원장) 스님은 "적은 비용으로 작은 센터를 짓을 것"이라며 "고(高)비용 재단은 필연적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지금 펼쳐진 자연을 최대한 보존해 쓰레기 매립지였던 대지의 흔적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부처님의 공간'을 짓고자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센터의 기반에는 가스 장벽을, 그리고 건축 부지에는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자연환경 보존의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스님은 "이곳이 지진 발생 지역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진 설계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새롭게 세워질 센터가 이곳의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달마 레인 젠 센터는 사우스 매



카쿠묘 로 웰드(Kakumyo Lowe-Charde · 공동체 개발위원회 위원장 · 사진 오른쪽) 스님과 셸리 지코 티스데일(Sallie Jiko Tisdale · 공동체 개발위원회 위원) 스님. 그 뒤로 달마 레인 젠 센터(Dharma Rain Zen Center)의 시스키유(Siskiyou) 건설 부지가 보인다.

디슨 주민회(South Madison Neighborhood Association)와 연계, 지역 주민과의 정례 모임을 갖고 있다. 사우스 매디슨 주민회는 2006년 시스키유 지역에 월마트의 입주 철회를 이끌어낸 주민 자치 조직이다.

"우리는 달마 레인 젠 센터의 계획이 지역 발전에 단단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이브 스미스(Dave Smith) 회장은 "적은 비용으로 작은 센터를 세우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고 텃밭을 가꾸며 인근 마을까지 오솔길을 만드는 것 등의 계획이 지역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 종교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은 지역 주민의 호기심도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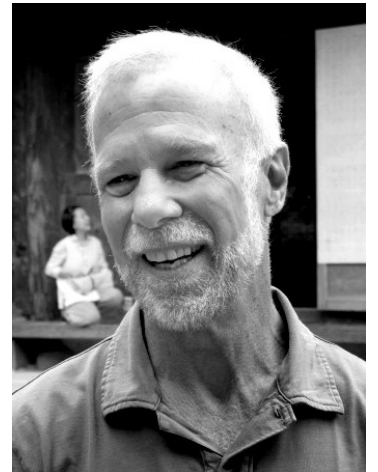
"센터는 매디슨 거리 남동쪽에 소규모로 건립될 것"이라고 설명한 티스데일 스님은 "센터 내에는 수행 공간뿐만 아니라 아이들만 문화 공간과 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한층 강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시스키유 달마 레인 젠 센터가 포틀랜드 전범에 교두보 역할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중욱 편집위원

돈점론에 관한 영어권 연구 집대성

세계의 불교학자(16)

피터 엔 그레고리 美 스미스대 교수



1980년대 성철 스님은 <선문정묘>를 통해 돈오점수를 이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때부터 한국 불교학계에서는 돈점논쟁으로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불교사적 기원을 밝히려 했고, 돈점논쟁에 관한 학술 서적들과 연구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돈점논쟁에 대한 이해와 쟁점을 정리해 모은 책을 꼽으라면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민족사 刊)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돈점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때 서구권에서도 돈점론에 관한 책이 나왔다. 바로 피터 엔 그레고리(Peter N. Gregory · 美 스미스대 종교학과)교수의 <돈점(頓漸) - 중국사상의 깨달음에 대한 접근(Sudden and Gradual: Approaches to Enlightenment in Chinese Thought, 1987)>이라는 책이다.

돈점론에 관한 영어권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물로 평가 받는 이 책에서 그레고리 교수는 반복되는 중국불교 돈점논쟁과 돈점을 통한 깨달음에 대해 조망했다.

그는 <돈점>에서 규봉종밀과 간화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종밀은 공안과 간화 수행이 중국선 전통에 활용되기 이전에 살았다.

선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간화선이 발전한 당시 선행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한 그는 "종밀의 돈오점수 접근 방식은 공안의 화두 참구에 초점을 두는 간화선 접근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밀은 돈오점수 최상승선의 특징인 수행과 깨달음의 일치에 이른다. 바로 처음부터 궁극적 목표를 겨냥한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그레고리 교수는 책에서 "돈(頓)의 주된 의미는 직접적이고 불이(不二)이고 매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오돈수의 경우에 있어 수행은 무상인 무념과 동일시된다. 깨달음과 수행이 일치하므로 수단과 결과가 일치 한다"고 덧붙였다.

그레고리 교수는 중세 중국불교 가운데서 당송시대 선과 남종, 화엄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았다.

특히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 사상을 집중 연구한 그는 <규봉종밀과 불교의 중국화(Tsung-Mi and the Sinification of Buddhism)> <중국 송시대의 불교(Buddhism In The Sung)>을 저술했으며 규봉종밀이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구한 문헌인 <화엄원론(華嚴原論)>을 영문 번역했다.

최근에 그는 19세기 중국불교 선종의 역사와 교리 기원에 관한 문헌을 완역했다.

그레고리 교수는 1981년 하버드대 동아시아어 문명학 박사과 졸업한 뒤 윌리노이 대학교에서 15년간 종교학을, 1999년 스미스대 종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동아시아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1984년부터 불교학과 인간가치를 연구하는 구로다 학회 회장직을 맡아 <동아시아 불교학>과 <동아시아 불교 고전>시리즈를 주도해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불교에만 관심 갖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동아시아 · 중국불교 연구에 매진 해오다 현재는 스미스 대학에서 미국불교에 중점을 두고 연구중이다.

중국 당송 불교 · 규봉종밀 연구

돈점논쟁 관해 영어권 연구 집대성

최근엔 미국불교에 대해 연구중

40년간 선수행 · 불교영화에 참여

미국불교 연구의 일환으로 영화 '감로문: 미국선공동체의 굶주린 영혼들에 양식을 주다(The Gate of Sweet Nectar: Feeding Hungry Spirits in an American Zen Community(2004))'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여성의 불교수행: 미국인들의 체험(Women Practicing Buddhism: American Experiences(2007))>을 공동 저술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미국불교의 현황을 집중 조망했다.

40여 년간 일본식 선 수행을 해왔다는 그레고리 교수는 지난해 8월 동국대 종합연구소(소장 종호)가 백담사에서 개최한 간화선 실천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40년이 넘는 수행 경험 중 화두 참선은 처음이다. 일본에서 초기 3년간 했던 공안 참구와 비슷했다"고 소감을 밝히며 "화두를 몰지 못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고, 향후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 단기출가 비구니...송크란 축제 탁발 나서

5~63세 137명 삭발 여성불자, 불교 개혁 희망

태국 송크란 축제의 시작은 스님의 탁발이다. 이날 탁발에는 스님뿐만 아니라 아이에서 어른까지 남성 단기출가자도 참여한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송크란 축제 기간의 탁발에 여성 단기출가자도 참여해, 태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지난 13일 방콕의 사티라-담마사탄(Sathira-Dhammasathan) 불교명상센터는 송크란 축제 기간에 137명의 여성 단기출가자의 탁발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여성들은 결코 단기출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태국의 사티라-담마사탄(Sathira-Dhammasathan) 불교명상센터가 3년 전부터 '남성 불자만'이라는 금기를 깨기 시작했다. 올해 단기출가자 여성들은 6세부터 63세까지 137명. 이들은 20일간 스님과 똑같이 생활한다.

사티라 담마사탄 불교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산사니 스투라트수타(Sansanee Sthuratsuta) 스님은 "태국불교계에서 비



태국 방콕의 거리에서 송크란 축제 탁발을 하고 있는 사티라-담마사탄(Sathira-Dhammasathan) 불교명상센터의 여성 단기출가자들. 올해에는 5세부터 63세까지 모두 137명이 단기출가에 나섰다.

구니 스님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스님은 3년 전부터 여성 불자의 수계를 시작하며, 태국불교계에서 여성불자와 비구니 스님의 역할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 승단이 비구니 스님의 역할을 수용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이라는 스님은 "태국 사회가 비구니 스님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멀지 않아 비구니 스님 중에서 정신적 지도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중욱 편집위원

일련종계 일본불교, 인도 전법에 적극

청장년층 포교 청신호...뭄바이에만 7천400여 명 추산

일본 불교계가 인도의 청장년 불심을 다잡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디엔에이(Daily News & Analysis, www.dnaindia.com)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련종 등 일본 불교계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도의 청장년들에게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에 힘을 실어 포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데비카 폰자비(Devika Punjabi · 27)는 일본 일련종(Nichiren Buddhism)의 상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인도의 반드라(Bandra), 칼(Khar), 사나타크루즈(Santacruz) 등지의 불자들에게 교류하며 실직에서부터 건강이나 행복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극인이다 보니 사람의 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상담을 제 신명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데비카 폰자비는 "사람에서 상담 교육 과정에 매달릴 때보다 더욱 신심이 난다"고 말했다.

에이제이 두다니(Ajay Dudani · 45)는 뭄바이(Mumbai)에서 '젠 아이(Zen

Eye)'라는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15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련종계 사찰에서에서 진행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수행의 시작"이라는 그는 "지역 불교계에서 도반을 만나고 함께 무료진료 등과 같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도심의 생업을 불교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련종계 모리타(Morita · 64) 스님은 "우리는 그들(인도의 청장년)에게 우선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나아가 선한 사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기에 주변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며 해결하는 신심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 뭄바이의 일련종계 불자는 76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만 5만5천여 명의 일련종계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중욱 편집위원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제 전문도량

현오스님 퇴마사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제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O.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